

AI 개발 뛰어난 네이버, 구글 대항마 될까

대화형 인공지능 '아미카' 선보여

자율주행차·로봇 등 집중 육성

웹 브라우저 '웨일' 연말 공개

국내 포털사이트 네이버가 인공지능(AI) 기술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구글과 애플 등 경쟁사들과 AI개발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까지 1000억원을 투자하는 등 AI 기술개발을 자사의 미래 육성사업 핵심분야로 택했다. AI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이들 업체가 개발하거나 내놓은 신기술이 사회 각부문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일상에 스며든 인공지능**= 네이버 송정현 CTO(최고기술책임자)는 지난 2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자사의 개발자 콘퍼런스 '데뷰(DEVVIEW) 2016' 기조연설에서 '생활환경지능'(Ambient Intelligence)을 핵심 목표로 삼아 공격적인 연구개발(R&D)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생활환경지능이란 AI가 생활 곳곳에 공기처럼 스며들어 날씨 안내·교통체증 안내·안전 운전 권고 등을 알아서 제공해주는 기술을 뜻한다.

키보드를 치고 메뉴를 누를 필요 없이 기계와 대화하면 '주인의 가려운 곳을 알아서 긁어주는' 것이 최대 장점으로 구글·애플 등 주요 IT 공룡들도 상용화에 사력을 다하는 분야다.

■네이버 공개 미래 신기술 4종

'생활환경지능' 엔진 아미카(AMICA) : 음성 인식 뒤 앱·TV·스마트카에 전달 →날씨·일정·교통정보 안내, 배달 주문, 식당 예약 등	 로봇 M1 고정밀 3차원 실내 지도 제작	 자율주행차(시제품) 생활환경지능 융합
웹 브라우저 웨일 : 마우스로 드래그해 검색, 이미지 번역 기능, 보안성 강화		

아이폰에 탑재된 인공 비서 시리(Siri)와 구글의 새 스마트폰인 '픽셀폰'이 내세우는 AI인 '구글 어시스턴트' 등이 대표적인 예다.

◇**대화형 AI 생태계 키운다**= '생활환경지능' R&D에 관한 자사의 핵심 성과로 대화형 AI 엔진인 아미카(AMICA)를 공개했다.

아미카는 사람의 말을 듣고 자연스럽게 답하는 AI로, 다양한 파트너 업체가 자사의 앱(스마트폰 응용프로그램)이나 하드웨어에 응용할 수 있다.

예컨대 채팅앱·TV·스마트카(미래형자동차) 등이 직접 사용자와 소통하는 길을 터줘, 생활환경지능의 보급을 앞당길 것이다는 의도다.

아미카가 삼성전자의 사물인터넷(IoT) 접착인 아티(Artik)에 이미 탑재됐고, 유통·식음료 대기업인 SPC·유명 배달 앱 '배달의 민족', 인기 숙박업 '아놀라' 등도 아미카를 기반으로 새 서비스를 개발하는

중이다. 송 CTO는 "생활환경지능에서는 기계가 아닌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UX(조작경험)가 필수"라며 "아미카는 사람의 의도를 읽을 수 있도록 만들어져 UX 구현에 필수요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율주행 기술·실내지도 로봇 공개**= 네이버는 생활환경지능 R&D의 다른 예로 자율주행차 연구와 통번역 앱 '파파고'를 꼽았다. 앞으로 수년간 AI 서비스가 가장 빨리 퍼질 수 있는 영역이 자동차와 통번역이기 때문이다.

차량 운전과 통번역은 다들 일상에서 필요로 하는 일이지만 지금껏 IT의 성과가 미진해, AI 융합이 성공하면 소비자의 빠른 열광과 지지를 얻어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네이버는 자사가 개발한 첫 로봇인 'M1'도 이날 선보였다. 레이저스캐너와 고정밀 카메라를 탑재했으며, 사무실·쇼핑몰·극장 등을 돌아다니면서 고정밀 3차원 실내 지도를 만든다.

우리 일상 곳곳의 맥락과 의미를 기계가 이해하려면 실내 공간에 무엇이 있는지부터 꼼꼼하게 지도로 파악해야 하는데, M1이 이런 작업의 기초를 다지는 역할을 하는 셈이다. 언뜻 로봇청소기를 닮은 M1의 슬로건은 '난 미래를 지도로 만든다'(I map tomorrow).

◇**웹 브라우저를 향한 '고래의 꿈'**= 네이버는 최근 5년간 개발해온 자체 웹 브라우저 '웨일'(Whale·고래)도 올해 12월 시험판을 내놓을 예정이다.

간편 검색·팝업·정리·이미지 번역 등 기능을 내세웠고 악성코드 등에 대한 보안성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스마트폰 이용자를 위해 메모리와 전력을 아끼는 기술까지 갖췄다.

웹 브라우저는 모든 인터넷 사용자들이 꼭 쓰는 소프트웨어(SW)인 만큼, 제대로 시장을 장악하면 다수의 네티즌을 검색 등 상품의 잠재 고객으로 끌어올 수 있다.

웹 브라우저의 대표 성공사례가 구글의 '크롬'이다. 크롬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인터넷 익스플로러'(IE)가 주도하는 세계 웹 브라우저 시장에 2008년 진출해 수년 만에 IE를 위협할 정도로 위상을 높였다.

IE의 영향력이 유난히 큰 한국에서도 크롬의 점유율은 작년 하반기 기준 PC에서 12.07%, 스마트폰에서 65.49%에 달했다.

네이버는 자사가 개발한 첫 로봇인 'M1'도 이날 선보였다. 레이저스캐너와 고정밀 카메라를 탑재했으며, 사무실·쇼핑몰·극장 등을 돌아다니면서 고정밀 3차원 실내 지도를 만든다.

“연구자들 하고 싶은 연구 지원”

미래부, 내년 자유공모 예산 1600억원 증액

정부의 연구자 중심 연구 지원이 획기적으로 강화된다.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는 최근 제기된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지원 확대 청원' 등 연구현장의 의견을 토대로 '연구자 중심의 연구지원'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를 위해 '내년 자유공모 기초연구지원사업의 예산을 올해보다 1600억원 늘어난 1조2600억원으로 예산당국에 신청했다'고 덧붙였다.

미래부는 연구자들이 실질적으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수행부처들과의 협의를 거쳐, 제기된 의견들을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기초연구 발전을 위한 청원 관계자 간담회 등 국회 차원의 지원 방안 논의도 병행하여 실효적인 정책이 추진되도록 할 예정이다.

우선, 전 학문분야를 대상으로 추진되는 미래부과 교육부의 자유 공모형 기초연구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특정 학문·기술·산업분야를 대상으로 추진되는 타부처의 연구개발사업 중 자유공모형 기초연구지원이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자유공모형 기초연구 지원 과제 확대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추진할 예정이다.

미래부는 기초연구 성격의 과제들을 세부 기술사항을 정하지 않는 자유공모 방식으로 추진할 경우, 연구 현장의 자유 공모 기초연구 확대 요구에 대응하는 것은 물론, 경쟁을 통한 수준 높은 연구

추진 효과도 동시에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처의 연구개발사업 중 자유공모형 방식으로 추진되는 과제를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통합 안내(공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예컨대, 전부처 연구개발사업 중 자유공모형 방식으로 추진 예정인 과제를 분류하여, 예산 최종 확정시 대상 과제 및 규모 등을 연구자들에게 사전 안내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설명회 등을 통해 과제를 지원규모, 지원 분야, 지원 자격, 신청 시기 등의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연구자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과제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연구자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연구지원 절차를 개선한다. 먼저, 장기적·안정적 지원이 필수적인 미래부·교육부 기초연구사업은 정부(원) 국회 제출 이후 차년도 지원과제에 대한 사업공고, 신청, 평가 등의 예비선정 절차를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 예산 이외에도 다양한 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 등의 기초연구 투자 확대를 유도하여 기초연구 재원을 다양화할 계획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연구자 편의와 수준 높은 연구 추진을 위해 앞으로도 더욱 적극적으로 연구 현장과 소통하면서 연구자 중심의 연구지원 정책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인공지능에 적합한 일은?

투약 알림 'OK' 육아 'NO'

4차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AI)에 적합한 일은 뭐가 있을까.

26일 허버트스미스리뷰(HBR)에 따르면 미국계 홍보대행사 웨버앤드워의 루이스 게인스-로스 수석 평판 전략가는 올해 자사와 KRC 리서치가 미국·영국·캐나다·중국·브라질 등 5개국의 소비자 2100명을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3분의 2 이상은 AI에 맡기고 맡길 일로 투약 알림·여행 길 안내·오락·맞춤형 뉴스 찾기·육체노동 등을 꼽았다고 밝혔다.

AI에 맡길 일 중에서 가장 답변이 적었던 것은 육아였다. AI가 사람의 일지리를 없앨 것이라는 공포는 높았다. AI와 관련된 우려를 묻는 말(중복 답변 허용)에서 전체의 82%는 '실업 문제'를 지적했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2%는 AI가 자신의 삶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내다봤다. 부정적 여파를 예측한 이들은 7%에 그쳤다. 다른 21%는 긍정과 부정의 영향이 뒤섞여 있다는 중립적 반응을 보였고 나머지 20%는 답변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붉은 거미 성운’ 공개 미 항공우주국(NASA)은 최근 허블우주망원경으로 촬영한 ‘붉은 거미 성운’의 모습을 공개했다. 지구에서 약 3000광년 떨어진 궁수자리에 위치한 이 성운은 'NGC 6537'이라는 명칭 외에 특유의 모습 때문에 붉은 거미 성운(Red Spider Nebula)으로 불린다. 성운 중심에는 수십 만도에 달하는 뜨거운 백색왜성(white dwarf)이 존재하며 초속 1000km의 항성풍이 주위 가스, 먼지와 뒤섞여 마치 거미와 같은 모양을 내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 갤럭시7 추가 보상 계획 발표

S7으로 바꾸면 노트8 살 때 50% 할인

삼성전자가 단종된 갤럭시노트7을 갤럭시S7이나 갤럭시S7엣지로 교환하면 내년 신제품이 나올 때 갤럭시S7의 잔여 할부금을 면제하는 추가 소비자 피해 보상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24일 갤럭시노트7을 갤럭시S7이나 갤럭시S7엣지 2종 가운데 하나로 교환하면 내년 출시하는 갤럭시S8이나 갤럭시노트8을 구매할 때 갤럭시S7 시리즈의 1년치 잔여 할부금 면제해 주기로 했다.

2년 약정을 기준으로, 기기 할부금 12개월치를 납부하면 나머지 12개월치를 면제하고 새 기기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쓰던 기기는 반납하고 새 기기는 다시 돈을 내고 구입해야 한다.

예를 들어 내년 초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를 전후해 공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갤럭시S8을 원하면 내년 2~3월 잔여 할부금 약 18개월치 중 6개월치만 추가로 내고 갤럭시S8을 구매할 수 있다.

혹은 내년 8~9월 나올 갤럭시노트8을 원할 경우 잔여 할부금 약 12개월치를 전부 면제받고 해당 기기를 구매할 수 있다.

갤럭시S8이나 갤럭시노트8 출시 직후 갤럭시클럽 등이 제시된다면, 소비자는 다시 새 제품의 할부금을 12개월치만 납부하고 2018년에 갤럭시S9이나 갤럭시노트9을 새로 살 수도 있을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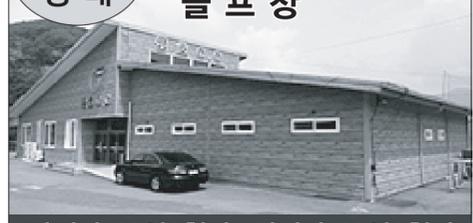
삼성전자는 갤럭시노트7을 갤럭시S7, 갤럭시S7엣지, 갤럭시노트5 등으로 교환하는 가입자에게 3만원 상당의 할인 쿠폰과 통신회비 7만원 등 총 10만원 지원 하기로 한 중진 프로그램은 그대로 유지한다. ▲연합뉴스



중개법인 한국토지경매



1522-3396

<p>경매 골프장</p>  <p>감정가 39억8천만, 최저가 39억8천만 광양시 봉강면 / 9홀 / 대지 9673평 건물 232평</p>	<p>경매 수익형 빌딩</p>  <p>감정가 24억3천만, 최저가 17억 순천시 풍덕동 / 10층 총54호 / 대지 106평 건물 690평</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20%;">장례식장</td> <td style="width: 80%;">감정가 116억 8천만, 최저가 116억 8천만 서구 매월동 / 대지 2912평 건물 1311평 / 자연녹지지역 / 40m도로점 / 주차장 완비</td> </tr> <tr> <td>가스충전소</td> <td>감정가 12억 7천만, 최저가 8억 9천만 화순 화순읍 / 대지 977평 건물 63평 / 자연녹지지역 / 35m도로점 / 자동차차기 / 3기 6구</td> </tr> <tr> <td>고급팬션 및 전원주택 부지</td> <td>감정가 7억 1천만, 최저가 5억 해남 화원면 / 임야 4691평 / 보전관리지역, 준보전산지 / 해안도로점 / 해변 전망</td> </tr> <tr> <td>숙박시설 부지</td> <td>감정가 6억, 최저가 4억 2천만 구례군 산동면 / 대지 1013평 / 계획관리지역 / 코너 12m도로점 / 지리산 운전지구 내 소재</td> </tr> <tr> <td>전통한옥식 전원주택</td> <td>감정가 3억 6천만, 최저가 2억 보성 / 대지 185평 건물 80평 / 도로점 / 보성강 전망</td> </tr> </table>	장례식장	감정가 116억 8천만, 최저가 116억 8천만 서구 매월동 / 대지 2912평 건물 1311평 / 자연녹지지역 / 40m도로점 / 주차장 완비	가스충전소	감정가 12억 7천만, 최저가 8억 9천만 화순 화순읍 / 대지 977평 건물 63평 / 자연녹지지역 / 35m도로점 / 자동차차기 / 3기 6구	고급팬션 및 전원주택 부지	감정가 7억 1천만, 최저가 5억 해남 화원면 / 임야 4691평 / 보전관리지역, 준보전산지 / 해안도로점 / 해변 전망	숙박시설 부지	감정가 6억, 최저가 4억 2천만 구례군 산동면 / 대지 1013평 / 계획관리지역 / 코너 12m도로점 / 지리산 운전지구 내 소재	전통한옥식 전원주택	감정가 3억 6천만, 최저가 2억 보성 / 대지 185평 건물 80평 / 도로점 / 보성강 전망
장례식장	감정가 116억 8천만, 최저가 116억 8천만 서구 매월동 / 대지 2912평 건물 1311평 / 자연녹지지역 / 40m도로점 / 주차장 완비											
가스충전소	감정가 12억 7천만, 최저가 8억 9천만 화순 화순읍 / 대지 977평 건물 63평 / 자연녹지지역 / 35m도로점 / 자동차차기 / 3기 6구											
고급팬션 및 전원주택 부지	감정가 7억 1천만, 최저가 5억 해남 화원면 / 임야 4691평 / 보전관리지역, 준보전산지 / 해안도로점 / 해변 전망											
숙박시설 부지	감정가 6억, 최저가 4억 2천만 구례군 산동면 / 대지 1013평 / 계획관리지역 / 코너 12m도로점 / 지리산 운전지구 내 소재											
전통한옥식 전원주택	감정가 3억 6천만, 최저가 2억 보성 / 대지 185평 건물 80평 / 도로점 / 보성강 전망											
<p>매매 오피스텔</p>  <p>매매가 40억 학동 / 8층 / 대지 133평 건물 577평</p>	<p>매매 상가건물</p>  <p>매매가 14억5천만 월계동 / 3층 / 대지 198평 건물 450평</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상가</td> <td>매매가 17억 서구 풍암동 / 대지 400평 건물 100평 / 윤리중학교 인근 / 주차시설 / 현 식당 영업중</td> </tr> <tr> <td>전원주택</td> <td>매매가 13억 담양 수북면 / 대지 1100평 건물 70평 / 조경 수목 식재</td> </tr> <tr> <td>숙박시설 부지</td> <td>매매가 8억 5천만 광산구 우산동 / 대지 181평 / 일반상업지역</td> </tr> <tr> <td>임대 수익형 다세대 주택</td> <td>매매가 5억 5천만 북구 운암동 / 대지 110평 건물 125평 / 3층 건물 / 22평형 6가구 / 공실없음</td> </tr> <tr> <td>계곡 산장</td> <td>매매가 3억 5천만 고창군 고수면 / 대지 300평 건물 65평 / 보전관리지역 / 원두막 10개, 평상 10개 / 하천독점사용</td> </tr> </table>	상가	매매가 17억 서구 풍암동 / 대지 400평 건물 100평 / 윤리중학교 인근 / 주차시설 / 현 식당 영업중	전원주택	매매가 13억 담양 수북면 / 대지 1100평 건물 70평 / 조경 수목 식재	숙박시설 부지	매매가 8억 5천만 광산구 우산동 / 대지 181평 / 일반상업지역	임대 수익형 다세대 주택	매매가 5억 5천만 북구 운암동 / 대지 110평 건물 125평 / 3층 건물 / 22평형 6가구 / 공실없음	계곡 산장	매매가 3억 5천만 고창군 고수면 / 대지 300평 건물 65평 / 보전관리지역 / 원두막 10개, 평상 10개 / 하천독점사용
상가	매매가 17억 서구 풍암동 / 대지 400평 건물 100평 / 윤리중학교 인근 / 주차시설 / 현 식당 영업중											
전원주택	매매가 13억 담양 수북면 / 대지 1100평 건물 70평 / 조경 수목 식재											
숙박시설 부지	매매가 8억 5천만 광산구 우산동 / 대지 181평 / 일반상업지역											
임대 수익형 다세대 주택	매매가 5억 5천만 북구 운암동 / 대지 110평 건물 125평 / 3층 건물 / 22평형 6가구 / 공실없음											
계곡 산장	매매가 3억 5천만 고창군 고수면 / 대지 300평 건물 65평 / 보전관리지역 / 원두막 10개, 평상 10개 / 하천독점사용											

부동산 매도 / 매수 상담환영

토지 / 상가 / 공장 / 창고 / 임야 **010-6772-1114 김주성**